

공연예술의 문화 사회적 변화와 표현영역의 확대

목차

1. 머리말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과 범위

2. 공연예술의 이해

개념과 의미

이미지 표현요소

3. 공연예술의 변화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

기술 환경의 변화

4. 공연예술의 변화 분석

매체의 전환

장르의 결합

기술의 활용

5. 맺음말

머리말

연구배경과 목적

공연예술은 국민생활 수준이 높은 연관 산업의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현장에서 관객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교류의 현장과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이다.

일회성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큰 성과를 올리는 영역이므로 차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점차 문화 향유를 원하는 감성이 증가하면서 공연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머리말

연구방법과 범위

새로운 미학적 형태를 가진 공연예술의 개념과 현대적 의미를 알고 무대를 구성하는 이미지 표현요소를 조사하여 그 효과를 정리한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공연 시장의 매출 증가와 산업의 확대, 기술 변화로 인한 장르의 융합화와 매체의 다양화의 시대적 변화를 규명하여 재조명한다. 공연예술 작품을 선정하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를 적용시킨 공연을 분석하였다.

공연예술의 이해

개념과 의미

공연예술이란 연극, 뮤지컬, 무용, 퍼포먼스 등 무대라는 제약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모든 예술들을 총칭한다.

공연예술은 조형예술과 구별되는 장르로서 운동성과 시간성을 갖는 예술 장르이며 창조의 측면과 수용의 측면 그리고 그 양면이 결합된 사회적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849년 바그너는 “미래의 예술” 에서 총체예술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바그너의 총체예술 개념은 예술의 포괄적인 통합을 위한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체계를 세우려고 했던 최초의 근대적인 시도 중 하나였다.

바그너는 음악, 노래, 무용, 시, 시각 예술과 무대 디자인 등 악극의 효과를 총체화하거나 통합하여 모든 예술을 이상적으로 결합하려 하였다.

현대사회의 공연예술은 전통적으로 뚜렷한 장르가 아니면서 자유로운 형식을 결합하여 상호교류하는 하나의 매체로써 문화 산업의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공연예술의 이해



니벨룽의 반지, 바그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바그너

공연예술의 이해

이미지 표현요소

일반적으로 무대는 공연되는 공간으로 배우와 관객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규정하는 장소이다.

공연을 구성하는 요소 중 연극적 소재를 행동의 예술로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공간이다. 이러한 무대 장치의 환경을 조성하며 공연예술 이미지를 형성하는 도구는 소도구와 의상, 분장, 조명, 음향 등이 있다.



공연예술의 변화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생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난 20세기에 걸쳐 서구의 문화와 예술을 지배해 온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으로서 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학에서는 저자가 객관적인 실재를 그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물을 조정하여 원근법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핵심적인 요소로는 상호 텍스트성, 탈 장르화에 의한 장르확산, 자기 반영성,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다.

현대예술 흐름 중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다채로운 만남과 장르간의 벽을 허무는 시도일 것이다.

고전음악과 대중음악, 시와 무용, 연극과 영상, 동양과 서양, 기계와 음악 등의 다양한 예술의 형태들이 서로 본래의 모습대로 함께 하고 전통적 형태를 해체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기도 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듯 과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현되고 있다.

공연예술의 변화



프로스트의자, 그로닝겐 박물관, 알렉산드로 멘디니



조르주 폼피두센터

공연예술의 변화

문화 환경의 변화

관람객의 소비형태가 과거에는 대중적이었다면 현재는 개인의 가치관에 의한 개인적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위해 여가시간을 효율성 있게 보내려는 사람들의 증가는 공연의 관람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현대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기술 환경의 변화

현대에 와서 장르의 다양성과 공연예술의 본래 특성을 포함한 표현영역의 확대를 가져왔고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며 총체예술을 지향하고 있다. 원작의 장르를 넘어 융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석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과거의 정보사회에서 텍스트 전달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시각적 이미지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뮤지컬, 무용, 오페라와 같은 공연예술의 경우, 매체와 결합하면서 고유의 표현방식 뿐 아니라 관객과의 새로운 상호작용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연예술의 변화 분석

매체의 전환

소설에서 공연으로의 전환

만화에서 공연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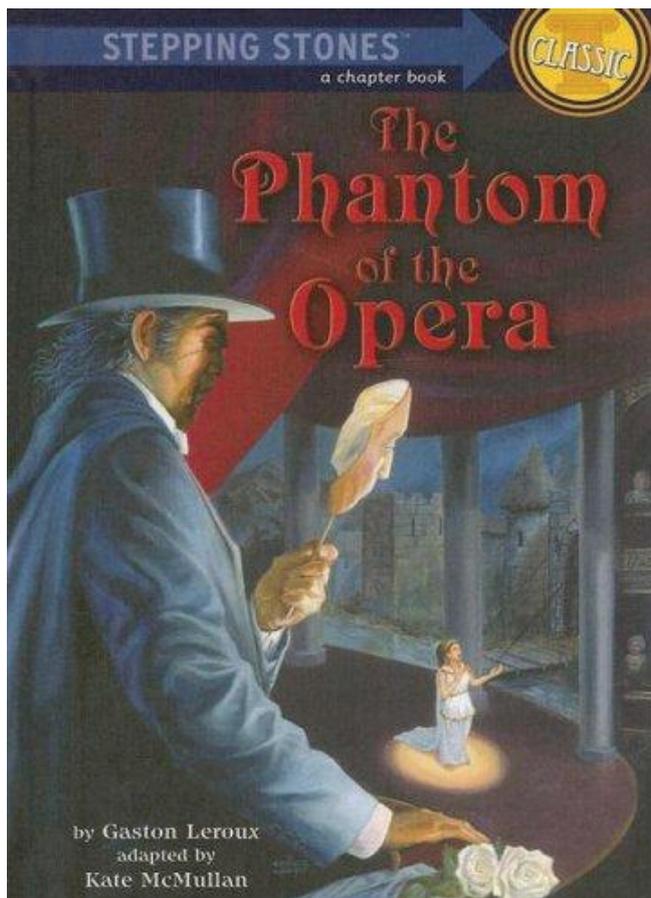
역사적 사실에서 공연으로의 전환

장르의 결합

기술의 활용

소설에서 공연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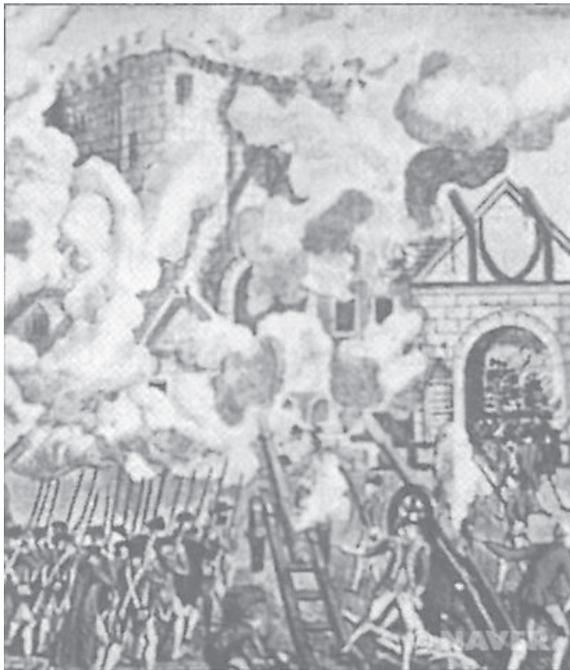
오페라의 유령은 파리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프랑스작가 가스통 르루의 원작소설이다. 오페라의 유령은 책으로 출판되기 전 신문에 연재되어 오르간을 연주하는 팬텀이나 샹들리에를 타고 있는 유령의 이미지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오페라의 유령 책표지(1989, 1910)

소설에서 공연으로의 전환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작가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1985년 초연된 영국에서 제작된 뮤지컬이다. 레 미제라블에서 소녀는 파리의 화가 에밀 베야르가 제작한 석판화로 제작한 어린 코제트를 표현한 것이다. 등장인물 중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인물이며 여러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소녀를 상징한다.



레 미제라블 무대



레 미제라블 책표지(1862)

소설에서 공연으로의 전환

아이다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오페라 작품 중 하나로 장중하고 화려한 음악과 호화롭고 장대한 무대장치 등 대표적인 오페라이다. 원본은 프랑스의 이집트 학자 마리에트가 이집트의 고도 멤피스에서 신전을 발굴하고 그 체험에서 착상한 줄거리를 드로크르가 각색한 것이다.



1908년의 아이다 공연



2007년 베로나 페스티벌 아이다 공연장면

만화에서 공연으로의 전환

라이온 킹은 디즈니 만화를 바탕으로 무대의 구성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아이디어가 넘치는 무대 운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물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을 드러낸 배우와 동물 가면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상 또한 동물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자는 몸의 곡선이 드러나는 의상을 통해 세대 차이와 역동적, 개성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라이온 킹 무대

역사적 사실에서 공연으로의 전환

역사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이문열의 소설 '여우사냥'을 원작으로 역사적 사실을 뮤지컬로 제작하였다. 이만익 화백의 한국적 화풍으로 명성황후를 단순하고도 절제된 선에 의해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명성황후 원작, 91x73cm, 캔버스 위에 유화, 1997년

역사적 사실에서 공연으로의 전환



이만익 화백의 작품

노을

도원가족도

청춘

얼씨구, 차차차

숲속의 아이들

장르의 결합

고급문화로 인식되어온 연극이나, 발레, 클래식, 순수예술은 현재 대중들이 흔히 즐길 수 있고, 대중문화로 인식되어온 영화는 가치 있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급스럽게 인식되었던 오페라나 전통극 등의 공연예술이 대중들에게 쉽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르미유.필론 4D 아트. 노만 맥라렌

장르의 결합



파드되, 노만 맥라렌(1968)



백조의 호수, 메튜본의 발레 뮤지컬

기술의 활용

공연예술 분야에서 오늘날 퍼포먼스로 불리는 여러 예술들 형태의 발달인 미래파와 다다 이후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형식 실험적 경향을 나타나게 하였다. 다다이즘을 기본으로 한 키네틱 아트는 움직임의 요소를 조형에 도입했다.

기술 발달은 무대를 통해 서로 융합되어 연기자의 시각적 효과, 극적인 표현력, 무대 장치의 표현영역을 확장시키고, 극의 내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관객의 감각을 자극시킨다.

기술의 활용



엘시노어, 1996, 로베르 르파지



라인의 황금, 로베르 르파지

기술의 활용



헵타메론, 게하르트 빙글러, 로렌스 월렌



람메르무어, 루치아



돌의 거울, 정혜진 무용단

맺음말

공연예술은 창조적 가치의 소산으로 문화 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관객과의 상호교감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종합예술로서 점차 시대적 변화를 겪어가고 있고, 오늘날 문화 산업의 확대와 장르의 다양화는 공연예술을 문화 상징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국민의 소득 향상으로 여가시간의 소비 형태와 관객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첨단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디자인의 표현 영역이 확대되고,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그동안 공연예술은 문화 산업 분야에서 적은 범위로 다루어져 왔고 대도시 중심의 고급문화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은 공연예술 시장 규모와 범위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관객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공연예술이 순수예술측면만을 강조하였다면, 현재는 다양한 장르의 통합을 통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다.

문화예술 시대에 공연예술 분야는 복합매체를 이용한 장르간의 경계를 넘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확대될 것이다.